

강원 한나라·김해 을 야권 우세 분당 을 초박빙·순천 혼전 양상

재보선 후보등록 시작 초반 판세... 여야 시활간 총력전

‘강원 한나라당 우세’, ‘경남 김해을 야권 우세’, ‘성남 분당을 박빙’, ‘순천 혼전’. 4·27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12일 격전지 4곳의 초반 판세에 대한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의 흐름을 좌우 할 4·27 재보선 판세를 조망해본다.

◇분당 을=각종 여론조사 결과, 하나 리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재규 대표의 박빙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8~9일 ‘더 퍼플’에 의뢰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43.3%의 지지율로 37.9%의 손 후보를 오차범위에서 앞섰다.

반면 국민일보가 7~10일 ‘리서치 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손 후보 49.7%, 강 후보 43.0%로 조사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종 승패는 투표율을 개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보선 당일 투표율과 함께 각 연령대의 투표 참여도가 분당을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경남 김해 을=일단 ‘야권 단일화’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

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봉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후, 민주당과 참여당이 학회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당장,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유심한 국민 참여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순천 =한 마디로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구희승(48·변호사),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

수석), 허상만(67·전 농림부 장관)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김선동(43) 민주노동당 후보는 일찌감치 표밭을 다지고 있다. 각 캠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단일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간의 지지율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및 지역 조직의 야권단일 후보 지원 여부. 현재로서는 민주당 조직이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김선동 후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 변수는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다. 무소속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원내대책회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는 정치게임만... 국민 회초리 들어야”

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4·27 재보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27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진층과 서민이 물가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대란, 구제역 등 ‘4대 민생대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생에 전념하기보다 쓸데없는 정치게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민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것은 무능해서 실패한 현 정부 때문”이라며 “정말 싫각한 문제는 정부 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물가폭등 원인

인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를 지키고 유류세를 내려 기름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한 세종시와 과학밸트, 동남권 신공항, 반값 등록금 등 대선 공약을 모두 뒤집고 비트는데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투표장에 나가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선관위 또 충돌

박지원 대표 방송연설 일부 ‘가위질’

해했다. 정 부의장은 또 “의원들이 꾸지람이 많은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존중심이 의심받지 않도록 잘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원전 안전성과 고유가 대책 등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일본 원전 사고로 불거진 원전 안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국민 불안 등을 반영해 원전정책 등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최 장관은 “기준에 수립된 계획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정부의 고환율 정책

이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의 자격에 “대기업이 많이 나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걷히고 대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의 일부 삭제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남 분당을 보선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12일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전날 오후 녹음했으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부를 방송 전 삭제 토록 했다.

삭제된 부분은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도 불구, 녹음 후 선관위가 다시 기위질을 했다”며 “심판이라는 용어를 왜 못 쓰는가,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부분”이라며 “결코 쇠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방송사 담당 PD가 방송연설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해와 방송문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청취자 입장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침울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7 재보선 현장

순천 농민회 김선동 지지



영6차 아파트 상가 3층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정식을 연이어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당원 등이 참석해 흥 후보의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임호경 “다음 선거 불출마”

4·27 학순 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12일 “이번 선거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군수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첫 번째 재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로서 군민들을 깨심려를 끼쳐드린 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순을 살 만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성공한 군수로 둘러나는 첫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군수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홍이식 내일 사무소 개소



4·27 학순 군수 재선거 홍이식 민주당 후보는 오는 14일 학순읍 신기리 부

대정부질문 불참 ‘괘씸죄’ 여야, 최중경 불러 ‘못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국회가 장관 1명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국제회의 참석자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 장관은 휴식 없이 2시간30분 가까이 선 채로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막았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주어진 질의시간 10분 중 무려 7~8분을 ‘괘씸죄’ 주장에 활용했다. 노 의원은 최 장관의 별명인 ‘최틀러’를 거론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에 대해 청찬하고 소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냐”고 질책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장관이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 했고, 한나라당 손숙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송곳 질의를 마친 노 의원에게 “수고가 많았다”면서 “제가 꼭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질책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의 자격에 “대기업이 많이 나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걷히고 대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맷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 사용시 5분 2회 순·발 맷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시민문화의 010-3231-3665

남성 성기능 강화제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되었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둘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니프리온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험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 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공급원입니다.

설크워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 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전혀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정도 연속적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정을 복용후 너무 발기가 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정(반나누)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문 02)2231-0533
010-7770-8138 ※ 주문주시택배/무료배송
농협 : 707019-56-138536 (예금주 : 권옥년)

부실재권 (못발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무관)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병장고 주방 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경
타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